七世

成巨
方澤 방택
시호 靖肅公 정숙공 號 琴軒금헌

二上

자(字)는 태보(兌甫)요 號는 금헌(琴軒)이시며 高麗 忠肅王(충숙왕)庚申一三二〇年四月十五日生이시다。
公께서는 어린시절부터 경학(經學)에 뜻을 두시고 실행함이 돈독하셨으며 선기(璿璣=天體觀測器具)의 운용과 락구(洛龜=洛書와 文王八卦)의 이치에 精通하지 안함이 없으시어 名望이 높으셨으나 草野에 묻히는 길(遺逸)을 택하신 까닭에 처음엔 섭산원(攝散員)으로시작 하시어 벼슬이 檢校 中樞院副使兼判書雲觀事(正三品)에 이르셨으나 高麗國이 運을 다하자 스스로 벼슬을 버리시고 瑞山의 島飛山中에 隱居하시며 高麗임금을 사모하는 感君恩曲 한곡만을 거문고로 오랫동안 연주하시면서 벼슬길에는 나가시지 않으셨다。
李太祖 등극 초기에 二十四節氣가 不分明해지고 中星의 度數에 差異가 일어나니 李太祖가 憂慮하다가 서운관(書雲觀)에 다시고치(改記)라고 命하였으나 서운관에서 告하기를 柳方澤公이 아니고는 改記할 수 있는 능력자가 없다고 상주(上奏)하였다。 太祖가 여러차례 公을 부르자 마지못하여 나오시어 설경수(偰慶壽) 권근(權近)등과 함께 개기하여 상주하니 과연 그 도수가 틀림이 없이 협화하였다。 현재 보존되고 있는 石刻天圖가 바로 이때 만들어진것며 이 石刻天圖가 홍범(洪範)에 傳해지고 있는것과 정확히 부합하였으니 그 당시 사람들이 公을 칭송하여 이르기를 『東方에 또다른 箕子가 있어 改記 할수있었구나』라고 하였다。 이 공훈으로 李太祖가 좌명일등공신(佐命一等功臣)의 녹권(錄券)을 특별히 하사하고 서산군(瑞山君)에 봉하였으며 한성윤(漢城尹=현재 서울시장)을 제수(除授)하였으나 모두 받지않으시고 송도(松都)취령산(鷲靈山)에 은둔하셨으며 산정에 단(壇)을 설치하시고 古都(松嶽)를 그리워하시며 글을 지으셨다。 己卯년(一三九九)에 公州로 가셔서 東鶴寺에 단(壇)을 설치하시고 돌아가신 임금에게 祭祀올리시고 포은(圃隱)鄭夢周와 목은(牧隱)이색(李穡)을 초혼(招魂)하셨다。 해를넘겨 다음해 庚辰年(一四

八世

子伯濡 백유
시호 文靖公 문정공 호 樗亭 저정

자(字)는 유부(濡夫)이시고 호(號)는 저정(樗亭)이시며
忠惠王(충혜왕)辛巳一三四一年生이시다。
경자년(一三六〇)에 진사(進士)에 합격하셨고 홍무(洪武)무신년(一三六八)에 다시 생원(生員)에 합격하셨으며 기유년(一三六九) 과거에 장원급제하셨다。 관직은 자헌대부이조판서 집현전대제학(資憲大夫吏曹判書 集賢殿大提學)正二品에 이르셨고 시호(諡號)는 문정공(文靖公)이시다。경서(經書)에 밝고 행실이 고고(孤高)하셨다。 홍무(洪武)四年신해(辛亥)一三七一년 恭愍王二十年에 김도(金濤) 박실(朴實)등과 더불어 중국(명나라)의 공거(貢擧=고대 중국에서 각지방의 우수한 인재를 천거하여 그들을 재 고시하여 합격자를 임용하는 제도로서 수양제이후 실시했음)에 참여 하시여 조정에 크게 명성을 떨치고 돌아오셨으니 그 文章이 유집(遺集)에 실려있다。공(公)이 이태조(李太祖) 위화도 회군시 정행(征行)에 따르셨는데 군대가 돌아옴에 구정(龜亭) 남재(南在=조선 개국공신 의령 南氏 李穡 목은의 文人)등과 같이 책훈(策勳)되셨고 좌사간(左司諫) 때에 李太祖가 개국일등공신(開國一等功臣)을 하사했으나 그를 고사(固辭)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신(臣)은 전쟁터에서 제말(馬) 등에 땀이 젖도록 달려서 도와드린 노고가 없아 온데 특별히 원종훈(原從勳)을 주시려하십니까 하고 사양하셨고 당시 대사헌(大司憲) 여칭(呂稱)역시 고사(固辭)하였으나 정언(正言)권근(權近)은 그것을 받았으니 당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가원(可遠)은 류사간(柳司諫=저정공)과 여대헌(呂大憲)으로인해 千秋토록 비난을 받게 될것이다라고 하였다。 가원(可遠)은 곧 권근의 자(字)이다。
恭愍王 현릉(玄陵)이 붕어(崩御)함에 권신(權臣)이 논의하여 신우(辛禑)를 임금으로 세우려 할때 공(公)께서『오늘날에 충신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하고 탄식하셨다。신우조(辛禑朝)에 이태조(李太祖)가 조준(趙浚)등과 함께 私田을 폐(廢)하는 개혁을 논의하

九世

子 漢 미 一〇下
子 淮 회 二一下
婿 魏 贇 위윤
長興人司贍署令